

손학규·문재인·박준영·김두관·정세균

민주 대선주자 5명으로 압축

민주통합당 18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손학규·문재인·박준영·김두관·정세균 후보(기호 순) 등 5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은 31일 오전 0시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예비경선은 29~30일 양일간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24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

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박 지사가 당 본경선에 진출함으로써 또다시 도지사직 사퇴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한 충청 출신이자 수도권 4선인 김영환 후보는 낮은 당원 지지도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만 내리 3선을 한 조경태 후보와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인 김정길 후보는 모두 부산에 기반을 둔 정치인으로 선두권

광주·전남 유일후보 박준영 통과 기염

8월 23일~9월16일 지역순회 본경선

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당원 여론조사와 국민 여론조사는 각각 50%씩 결과에 반영됐다.

예초 뒤늦게 경선전에 뛰어들어 열세로 분석됐던 박준영 후보는 난관을 극복하고 예비경선을 통과해 파란을 일으켰다. 유일한 광주·전남지역 출신 후보인 박 전남지사지는 낮은 전국적인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지지로 본경선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선 전남지사인 박 후보는 전국적 정치인으로 부상했고 본경선에서 어떤 성적을 거

에 있는 문재인 후보와 표를 나눠 가지면서 예비경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민주당 대선후보 본경선은 친노 1명(문재인), 범친노 2명(김두관, 정세균), 비노 2명(손학규, 박준영) 후보 간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당원과 국민을 구별하는 국민참여경선식의 예비경선과 달리 본경선에서는 당원이든 국민이든 차별 없이 신청만 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가 적용된다.

본경선은 다음달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제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인천, 경남, 광주·전남, 부산, 세종·대전·충남, 대구·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또 본경선 1위 후보가 50%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9월 23일까지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30일 런던올림픽 양궁장인 런던 로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열린 여자 단체전 결승전 한국-중국 경기에서 승리한 최현주, 기보배, 이성진이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배가 해냈다” 女양궁 올림픽 7연패



유도 왕기춘 메달획득 실패

광주가 배출한 ‘신궁’ 기보배(24·광주시청)가 올림픽 7연패를 완성했다. 〈관련기사 3·14·15면〉 한국 여자 양궁대표팀은 30일 새벽(이하 한국시각) 영국 런던의 로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열린 런던올림픽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210-209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1998년 서울 올림픽에서부터 2012 런던 올림픽까지 대회 7연패다.

기보배의 마지막 한발에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폭우라는 돌발 변수에 박빙의 승부가 벌어진 결승전에서 대표팀 막내 기보배는 마지막 주자로

나서 침착하게 9점에 화살을 꽂아넣으며 210-209의 승리를 마무리했다.

첫 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건 기보배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 2관왕에 도전한다.

수령 박태환에 이어 유도 조준호(24·한국 마사회)도 석연찮은 판정 이득을 보았다. 폭우라는 돌발 변수에 박빙의 승부가 벌어진 결승전에서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지만

심판위원장의 개입으로 비디오 판독 끝에 판정패를 당했다. 패자부활전을 통해 동메달 결정전에 오른 조준호는 스페인의 수고이 우리아르테를 꺾고 ‘운물의 동메달’ 주인공이 됐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 왕기춘은 30일 밤 영국 런던의 엑셀 런던 노스아레나에서 열린 남자유도 73kg이하급 준결승에서 러시아의 만수르 이시예프에 유요패를 당해 결승진출에 실패했

다. 3·4위전에 나선 왕기춘은 프랑스의 우고 르그랑과 연장전 끝에 절반으로 패해 메달획득에 실패했다.

구기종목에서는 승전보가 이어졌다. 올림픽 첫 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스위스를 2-1로 꺾고 8강 진출에 성공 다가갔다. 12년 만의 메달을 노리는 한국 남자 하키 대표팀도 B조 예선 1차전에서 뉴질랜드를 2-0으로 격파하고 산뜻한 출발을 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도 예선 B조 두번째 경기에서 덴마크를 25-24로 꺾고 2연승을 달렸다. 또 여자배구대표팀은 주포 김연경의 맹활약으로 세트비율 3대1로 꺾고 대회 첫 승을 올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영광원전 6호기 고장 발전 정지

방사능 누출 없어...전력수급 차질 우려

폭염 속에 전력 사용량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kW급 영광 원자력발전소 6호기가 30일 고장으로 자동 발전정지됐다. 방사능 누출 등 안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으며 진행된다. 또 본경선 1위 후보가 50%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9월 23일까지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1월 월성 1호기가 냉각재 펌프 고장으로 자동 정지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한수원 측은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 구동장치의 전원공급계통 고장으로 제어봉이 낙하해 원자로 내에 삽입되면서 자동 정지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고 등급 제로 단계로, 방사능 누출 등의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영광 6호기는 가압경수로형(PWR)으로 지난 2002년 12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현재 영광원전에는 가

압경수로형 원자로 6기가 운영 중이며 총 시설용량은 590만kW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3시께 최대전력공급능력은 7648만kW에서 7545만kW로 떨어졌지만 예비전력(오후 3시 35분 현재)은 568만kW, 예비율은 8.2%로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확한 정지 원인을 조사한 뒤 결과가 나오면 최종 점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거쳐 발전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재가동 시기는 아직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식기자 ischo@

檢,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오늘 국회 동의서 제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윤식 부장검사)은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9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첫 소환 통보 이후 11일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

응했다. 검찰은 지난 3차 소환통보를 ‘최후 통첩’으로 못박았고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적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이르면 31일 국회에 체포동의의 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되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학년도 학부 수시 1차
원서접수 : 8월 20일 ~ 9월 11일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원서접수 : 8월 6일 ~ 8월 20일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기보배 ‘미녀공사’ 양궁얼짱의 꿈 금빛 신화가 되다!



기보배 선수
2012런던하계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온 국민과 함께
광주 21세기병원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광주 21세기병원
GWANGJU 21ST CENTURY HOSPITAL
온남고등학교 맞은편 ☎ 062-953-7000 958-9000